



“ The 배려하고 The 존중하면 The 행복한 승정 ”

■ 아홉 번째 봄, 그날을 기억하고 내일의 희망을 만들겠습니다.

■ 세월호 참사 9주기를 맞아.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8분경 전라남도 진도군 인근 바다에서 침몰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객 476명 가운데 295명 사망하였고 9명의 실종자가 발생하였다. 사고 당시 세월호에는 다양한 목적과 꿈을 갖고 제주로 가는 476명의 승객이 탑승하였다. 승객 중에는 생계를 위해 일하러 가는 사람, 입대 전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탑승한 사람, 가족과 함께 제주로 이사를 가는 사람 등이 있었으며 탑승객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과 교사였다. 이런 이유로 희생자의 대부분은 수학여행을 가던 학생들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소식을 접한 국민들은 희생자들을 애도하였고 사고 직후 실종자의 가족들을 위해 전국 각처에서 각종 구호물품을 보냈으며 성금 모금 운동을 하였다.

세월호 참사에서 희생자가 많아진 이유는 선원들의 무책임함과 해경의 초기 구조 활동의 미흡에 있다고 한다. 반면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들은 탑승객을 구출하기 위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발휘하였다. 김동수, 故박지영 승무원, 故양대홍 세월호 사무장, 故정차웅 학생, 故남윤철 교사, 故최혜정 교사가 그들이며 이들을 세월호 의인 혹은 영웅이라고 부른다. 이 중 故박지영 승무원과 故최혜정 교사는 미국의 공익 재단인 Four Chaplains Memorial Foundation에서 선정한 2014년 금메달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월호 참사는 기업의 이윤 추구,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초동 대처 실패, 선원들의 무책임한 행동 등으로 인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안전 불감증에 대한 심각성, 안전 수칙 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책임 있게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안전의식을 갖고 생활하고 체험활동 시 철저히 시설점검을 하며 평소 생활 속에서 나쁜 아니라 친구, 가족 모두를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해 나가야 하겠습니다.